

## 길을 떠나는 그대에게

- 도육환 선교사 / 2003. 2. 20 -

만일 여러분이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하는 일에 헌신할 뜻을 품고 있는 분이라면,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리시는지 알고 또 실천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랄 것은 ‘보리떡 다섯’ 같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는 열 두 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진정한 기쁨은 그 축제의 뒤편에서 빛을 받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요2:9)

선교현장에서 주님의 생생한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헌신의 기쁨’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애 가운데 소중한 부분을 드려 이 ‘숨겨진 기쁨’에 참여해 보실 것을 기꺼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선교사로 이방 지역에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큰 위험과 고난, 수고 그리고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보다 주께로부터 받는 은총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즐거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8)

‘헌신의 길을 떠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현장 생활 첫 1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간은 앞으로 펼쳐질 그의 선교 사역과 생활 양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풀러신학교의 부르스터 교수는 ‘본딩’(Bonding) 곧 ‘초기 결속하기’라고 불렀습니다. 부르스터 교수는 그가 선교지에서 만난 많은 선교사들을 보면서, 초임 선교사들에게도 학습심리학자 로랜쯔가 발견한 ‘각인(imprinting)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심리학 개론이나 자녀학습이론 등에서 로랜쯔의 ‘각인찍기’에 대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학습과정에 대해 연구하던 로랜쯔는 알에서 막 깨어난 새끼오리들에게서 신기한 본능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끼오리들은 알을 깨고 나왔을 때 그들 눈앞에 보이는 ‘첫 움직이는 물체’를 어미로 각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로랜쯔를 어미인양 뒤뚱거리며 따라가는 새끼오리들의 재미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각인 현상은 막 선교지에 정착하게 된 초임 선교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선교사들이 모국에서부터 사랑하며 기도해 오던 선교현장으로 들어와 정착할 때, 누가 어떻게 정착을 돕느냐하는 것은 현지문화 결속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도착하면 선배선교사들이 공항에서 환영하여 친절하게도 그들의 집이나 선교센터 등에서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선배 선교사는 자신이 처음 정착하면서 마음으로 몸으로 고생했던 것들을 신임 선교사가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겨 줍니다.

그러나 그 첫 몇 주 혹은 몇 달을 선배선교사의 배려를 받아 자녀들의 학교, 시장보기, 교통편, 언어학교 등에 대해 안내를 받으면서 초임 선교사는 현지인이 아닌 신임 선교사의 생활양식을 각인하게 됩니다.

저 역시 비슷한 과정을 밟으면서 현지에 정착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도착하는 첫 날 한 선배 선교사님이 미리 세를 얻어 주신 집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고, 그 선교사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현지 생활 안내를 받았습니다. 가방 몇 개만을 들고 갔으니 전자 제품에서 빗자루에 이르기까지 구입해야 할 생필품도 만만치 않았지요.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때부터 우리의 현지 생활양식은 어느 정도 방향이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희 부부는 그 선교사님의 섬김에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의 불편함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선교사인 우리 가정에게 적절한가?’ 이 질문은 거의 1-2년간 계속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선교사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데 꽤나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역시 선배 선교사가 되면서 비슷한 전철을 밟으면서 신임선교사를 안내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남아시아 선교베이스를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정에 이후에 여덟 선교사 가정이 우리의 비전과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신임으로써 마땅한 섬김이라고 생각하며 베푸는 친절이 ‘신임 선교사님들의 초기 현지 결속’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현지의 문화와 생활양식이 아니라 신임 선교사인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결속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스스로의 열망에 따라 현지에 잘 결속되어 아름다운 삶의 본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충분히 현지화되지 못했음을 갈등하면서도 아직 문화의 이방인으로 남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도 ‘재결속’(re-bonding)의 의지로 성숙의 몸부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실재로 선교현장에 나가는 초임 선교사들의 의지와 헌신의 열정은 그 어떤 어려움과 조건에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아드레날린 분비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좀 더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선교현지에 도착하는 그 날로 현지인의 집이나 선교 센터로 들어가시길 권합니다. 그들의 생활양식과 문화에 각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현지 선교사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자제하고, 차량 구입은 재정이 준비되고 필요가 느껴지더라도 1년 이상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문화에서 격리되지 않도록 의지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지어 습득은 교실이 아닌 커뮤니티에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그것도 책으로만 외국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적절한 언어 학교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많이 배우고도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밖에 써먹지 못합니다. 우리 외국어 공부방식이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적게 배우고 많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Community is my language class" 가장 훌륭한 언어 교사는 길거리와 내 이웃집에 있는 것입니다. 단일문화, 단일 언어권에서 성장은 우리 한국선교사들은 어쩔 수 없는 타문화 정착에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같은 부흥을 허락하시고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신 데에는 다른 선교사들이 갖지 못한 열정과 헌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일군을 세웠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써들을 신고 우리가 먹는 빵을 드신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도 좀 더 현지를 사랑하고 동화가 되어 하나님과 현지인들에게 칭찬받는 주의 일군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